



# 흙·사람·빛... 강진청자, 겨울 낭만을 빛다

51st

강진청자축제

축제 비수기에 계절 체험거리 더해  
23일부터 3월 1일까지 고려청자박물관 일대  
가마 불지피기·군밤 체험·소원청자 만들기·빛 조형물

강진의 대표 축제인 '강진청자축제'가 올해부터 겨울로 개최 시기를 옮겨, 오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에서 열린다.

강진군은 축제 비수기인 겨울철을 공략해 축제에 대한 화제성을 높이고, 더 많은 관광객 유입을 위해 개최 시기를 변경했다.

청자축제는 여름방학 특수를 노리고 여름에 개최했다가 본격 행락철인 가을로 옮기는 등 개최 시기를 바꿨지만, 여름에는 장마와 더위로, 가을에는 '강진만 갈대축제'와 개최 시기가 겹치는 데다가 특히, 전국 지자체 축제의 대부분이 봄과 가을에 집중돼 있어, 치열한 경쟁에서 관광객을 유인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51회째를 맞는 강진청자축제는 '흙, 불 그리고 강진의 겨울이야기'를 '불과 빛'으로 풀어내, 차별화 된 겨울 축제를 선보인다.

개막식은 25일, 특설 무대에서 KBC 개막 축하쇼와 연결해 진행되며, 겨울 청자축제는 '흙'의 이야기, '불(빛)'의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 '겨울' 동화 테마로 34개 행사가 펼쳐진다.

계절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화목가마 불지피기, 눈썰매장, 짚라인, 빙어잡이, 군밤체험, 글로벌 대동 연날리기, 소원청자 만들기 등과 따뜻하게 가족, 연인과 함께 간식을 구워먹을 수 있는 '파이터피트 9292(가제)'도 야심차게 선보인다.

이와 함께 MZ세대를 겨냥한 '빛의 조형물' 설치로, 젊은 세대들이 즐겨하는 다양한 채널의 SNS를 통한 축제 홍보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한 해의 소망과 목표를 담은 '소원 청자 만들기'는 낮에는 방문객들의 소원 메시지를 작성하고 밤에는 조명 설치로 야간 경관을 환하게 밝힌다.

화목가마에서 굽는 청자 제작 과정을 체험해 보며, '불명'과 '불'의 온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화목가마 불지피기'는 51회 대회를 상징해, 사전에 51명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축제 기간 내내 행사장 곳곳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개인 롤 플레이 게임'을 통해 강진 청자 관련 퀴즈를 맞추면 청자 키링 등의 기념품을 제공해, 관객들의 참여하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동시에 강진 청자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이 밖에 율놀이, 팽이치기, 사방놀이 등 한국의 전통 겨울 놀이와 이글루 조형물, 청자 스노우 오르골, 팽귄 포토존 등 어린이 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또한, 사전 신청 프로그램은 강진청자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및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폐막식은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쥐불놀이팀과 농악대팀이 함께 등장해 대동제의 분위기를 띄우고, 참여자들의 소원을 적은 나무를 함께 태우며 축제는 마무리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청자축제의 개최시기를 겨울로 옮기는 것은 축제 비수기를 공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남도와 4개 시군의 협력을 통한 전남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국제 축제로의 도약을 통해 파이 자제를 더 키워가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 1970년대부터 고려청자 명맥 잇기 국보급·생활자기 보급 '대중화 앞장'

청자 계승 강진고려청자박물관

강진군은 축제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참석자의 87%가 겨울 축제 개최에 찬성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겨울 청자 축제를 준비해 왔다.

강진청자축제는 1973년 금릉문화제로 시작해, 2009년부터 강진청자축제로 이름을 바꿨다. 20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소됐고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강진은 질 좋은 흙과 가마 제작 시 필요한 경사지, 제품 운반에 필요한 뱃길을 두루 갖춘 고려청자의 요지로 전국에서 발견된 고려청자 가마터 400여 기 중 절반 수준인 188기가 자리해 있다.

특히, 고려 청자의 시그니처인 '상감기법'은 강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색'이라 불리는 맑은 유약을 개발하고 무늬를 파내 다른 색의 흙을 채우는 과정이 탄생한 청자의 도시이다.

군은 현재 고려청자박물관을 운영 중으

로, 이 박물관은 1970년대 고려청자의 재현을 위한 고려청자사업소로 출발해, 2006년 강진청자박물관으로 등록했으며 2015년 고려청자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청자 보존과 계승에 앞장서고 있다.

1977년부터 청자생산 전문인력을 채용해 고려청자의 맥을 잇고 있으며, 청자박물관에는 20년 이상 경력자를 포함해, 12명의 도공이 활동 중이다. 도공 한 사람이 한 달 평균, 청자 1점을 빚어내 강진 청자는 소장 가치도 높다.

현재 강진군내에서는 예술품으로 소장 가치가 높은 국보급 청자와 함께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자기를 개발 보급 중이다. 현재 관내 38개 업체가 청자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군에서 운영 중인 고려청자박물관은 주기적으로 온라인 경매를 실시해 청자 대중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해, 첫 온라인 청자축제를 통해 온라인 방문객 62만명이 찾아 3억 6200만원의 강진 청자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